

# 김한길 “安 독자세력화, 與에 어부지리 줄수도” 장·차관 14명 군대 안갔다

### “호남 소외론 없어...호남이 선택한 결과” “10월 재보선서 安과 선의의 경쟁할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0일 지도부 내 호남 소외론과 관련, “호남이 소외된 게 아니라 호남이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호남 유권자인데, 이들이 호남 후보를 대표로 뽑은 게 아니라 저를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호남 소외론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마도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저를 뺀 나머지 두 분이 호남출신이었는데, 그분들이 당 대표로 뽑히지 못했고, 이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세분 중 두분이 호남출신이었는데 선택받지 못해 호남 소외론이 얘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대해 “무조건 독자세력화를

향해 가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 어쩌면 새누리당으로부터 (안 의원이) 표창장을 받을 일”이라며 “독자세력화가 정치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면 진행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재·보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관계에 대해 “연대 거부보단 일화의 모양새는 국민에게 대단히 정치공학적이라고 비쳐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며 “4·24 노원병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취한 태도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의원 측과) 경쟁할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경쟁할 것이며 선의의 경쟁은 피할 일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결과가 10월 재·보선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상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한 결과”라며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현실정치에서 맞이하는 한계와 민주당이 알찬 혁신을 통해 내보일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및 여야

대표 간 회동 여부에 대해 “우리 쪽과 청와대가 지금 의제와 형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의원 측에서 도입을 주장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문재인 뿐 아니라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 지난 대선 경선에서 뮌 사람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모두 차세대 주자로 거론된다”며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추구하는 가치를 정확히 밝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부 고위 공직자 분석...19대 국회의원 47명 ‘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가운데 14명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제외) 중 4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30일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 대비 0.4% 포인트가 각각 높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임명 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18.4%)이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 등이다.

병무청은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임명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2만4722명(여성제외) 중 2만2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 이 가운데 2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어린이집 교사 급여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당정, 처우개선 합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7.8%에 불과하다.

각 시군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만 비교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격차는 약 21~51만원까지 벌어진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만 5세 담임에게만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만0~4세 담임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던 지난해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다소 나아졌지만, 담임교사에게 51만원, 비담임교사에게 4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주는 유치원 사정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민주당 ‘정책소통 채널’ 구축될까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들의 민주당 지도부 예방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제1야당을 찾아 국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 인사들의 야당 지도부 릴레이 예방의 첫 테이프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끊었다. 정 총리는 5·4 전

당대회를 통해 제1야당의 새 지도부로 선출된 김 대표를 찾아와 현정부의 대북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같은 날 김 대표를 예방,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 방문,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야당의 의견을 구했다.

원내 컨트롤타워로 지난 15일 선출된 전병헌 원내대표에게도 장관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경제부총리(24일)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2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30일 오전) 등이 전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30일 방문의사를 타진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1

## 국무위원들, 당지도부 예방 ‘업무협력’ 제안 ‘공정’ 반응

주일 동안 4명의 정부부처 장관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야-정(野-政)간 소통 노력에 대해 정치권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정부와 야당이 서로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 30일 야당과 정부간 ‘업무 협력 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진주의료원 폐업 성토

###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만 참석 ‘반쪽’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대책을 논의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환자가 남아있는 병원을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한 사례가 있었는가”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폐업 이유로 내세우는 강성노조와 적자 문제에 대해 “홍 지사의 거짓말”이라며 “작년 60억 적자 중 신축이전 원리금(18억원), 감가상각액(33억원), 퇴직금 대비 설정액(15억원)은 장부상 처리되는 것이 실제 적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이연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뒀던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을 감안안으로 코드겨놓고 진행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임위 배정 이후 처음으로 복지위원회에 참석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틀을 쉽게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라며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세울 방법을 논의할 장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해 공공의료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야당인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고액대출환영
- ▶ 사업자금대출
- ▶ 미준공건물
- ▶ 공유지분대출

※ 자사대출 / 자유상환 /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빌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부동산재테크컨설팅,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1억

#### 토지매매

- ▷ 화순읍 연암리 자연복지 단지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기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방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